

‘항상 이미’있는 무의식의 발견

정신분석학의 이론과 저술

박찬부

경북대 교수·영문학

이제 우리나라도 정신분석학 시대로 접어드는가. 요즘 신문·잡지에서 열풍처럼 다루고 있는 정신분석학 관련 특집기사나 서평 등을 읽고 있노라면, 그리고 프로이트·융·라캉 등 정신분석학 대부들이 지하에서 생환한 듯 그들의 개성 있는 사진들이 여기저기서 산견되는 것을 보면 정신분석학의 ‘제국주의적 침투’(비판론자들의 말)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정신분석학 응용서적 속속 출간

최근 여러 출판사에서 앞다투어 기획하고 있는 정신분석학 관련 서적에 대한 번역작업이 이 운동에 추동력을 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열린책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이트 전집》 번역작업은 대역사로서 우리나라의 출판 사상 큰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벌써 1차분 세 권이 나왔고 내년 3월까지 전 20권을 완간한다는 계획 아래 국내에서 정신분석학 이론에 밝은 분석가·철학자·문학 비평가들이 번역진으로 나섰다. 독일어 원본보다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온다는 《표준판 프로이트 전집》의 책임 번역, 편집자 제임스 스트래치가 한 평생을 이 일에 몸바쳤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이 한국어판 번역작업이 좀 서두는 감이 없지 않으나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곧 출판될 《현대 비평과 이론》지 가을·겨울호가 문학과 정신분석학 특집으로 주목할 만한 논문들을 싣고 있다. 올 봄에는 계간지 《문학동네》, 《문학과 사회》가 정신분석학 관련 특집호를 내 독자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외국문학》등 여러 저널에서 정신분석학이나 정신분석 비평에 관한 특집호를 꾸며서 이 시대적 사조를 전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각 출판사마다 정신분석학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각종 번역과 출판사업을 독려하면서 이 분야에 관한 새로운 독서층 형성에 부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정신분석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진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 정신분석학과 이에 관련된 학문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는 것이 이상한 느낌마저 든다는

우리나라에 정신분석학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열기가 거품성 불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학문 전반에 내실화 하려면 인문과학적 이론가와 실천적 분석가의 연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것이다. 프로이트가 1896년에 ‘정신분석학’이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하기 시작한지 금년이 꼭 100년이 되는 해로서 정신분석학은 그동안 엄청난 힘으로 현대사상에 영향을 끼쳐 왔다.

근년에 미국에서 나온 한 평론 선집은 그 제목이 《정신분석학과...》으로 되어 있다. 이 말줄임 표에 문학·철학·역사학·사회학·정치학·기호학·여성학 등 어떠한 학문을 대입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정신분석학이 타학문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삶의 문제 전반에 대해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도대체 프로이트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무의식의 발견’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정신분석학을 논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의식의 문제는 덮어버리고 깨끗이 표백된 언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경우 그들은 무의식의 문제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있거나 그 표백된 언어 속에 이미 무의식의 문제는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무의식을 논하지 않는 어떠한 논의도 정신분석학적 논의가 아니다. 프로이트가 전기 이론에서 보였던 무의식의 절대적 타자성에 대한 치열한 관심이 그의 후기 이론에서 상대적으로 퇴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의식 발견자 프로이트에게조차 무의식은 무의식적이었다고 한 라캉의 지적은, 무의식의 무의식성과 그것의 억압 가능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무의식의 개념

무의식의 개념은 프로이트가 개인적 무의식을 말할 때, 융이 집단적 무의식을 말할



서점에 선보인 정신분석 관련책들.

때, 그리고 라캉이 언어적 무의식을 말할 때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무의식이 주체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정신층, 프로이트의 메타포를 사용하여 의식의 ‘너머에’ ‘뒤에’ ‘밑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데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간단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라도 우리는 일상생활과 학문 도처에서 무의식의 문제를 읽을 수 있다. 숙련된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기호적 표현으로 꼽은 네가지 현상, 즉 꿈, 언어의 실착, 증상, 조크 등에서 무의식이 하나의 시니피앙으로 자신의 모습을 현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학 쪽으로 눈을 돌리면 문학적 무의식, 혹은 텍스트성 무의식이 어떤 탈문자 현상으로 텍스트의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무의식은 라캉의 표현대로 ‘나의 역사중 공백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거짓말로써 채워진 장’이고 ‘검열된 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와 정치·문화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은 사회적 무의식, 정치적 무의식, 문화적 무의식을 밝혀줄 수 있다. 정치적 담론 속에 어떤 억압의 구조를 발견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로이드언이즘을 마르크시즘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억압의 논리와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오고야 만다는 법칙 속에 이 둘은 만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적 무

의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요즘 활발히 논의되는 탈식민주의 이론도 식민주의적 지배적 담론을 해체하려 할 때 이미 억압의 구조에 대한 통찰력이 전제가 된다. 해체론은 정신분석학과 더 큰 친화성을 보인다. 데리다의 중심개념인 ‘차연’ ‘보충’ ‘흔적’ 등이 무의식의 문제와 심상치 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사람은 많다. 여성학과 관련해서는 정신분석학과 페미니즘이라는 수많은 저서와 편집자들이 이 둘사이의 연결고리를 짚어 준다.

이와 같이 무의식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명징한 사유 주체를 역설했던 의식론자 데카르트의 머리 속에서도, 항상 단정한 용모에 이성과 질서를 강조했던 지성과 시인 T.S. 엘리엇의 시에서도, 꿈과 환상을 비웃는 완고한 리얼리스트나 정의의 사도, 민족론자들의 거친 담론 속에서도 예외없이 무의식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의 편재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억압된 무의식의 가공할 파괴성을 인정할 때,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려는 노력은 우리의 행복조건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자기성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너 자신을 알라’는 파르테논 신전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캉의 정의대로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 자기 속에 품고 있는 타자, 인간관계 속에 드러나는 타자, 언술적 담론 속에 자신을 현현시키는 타자, 이 타자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삶은 맹목적 삶이다. 범법자를 찾아 외부로 향하던 눈길은 곧 자기 자신에

실례 중심의 값진 '임상 법학'

《법률테마기행-법이 뭐길래》를 읽고

한승헌 · 변호사

계와 박해를 확인하는 순간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찌르고 만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맹목성을 통해 개안한 것이다. 정신분석학은 근본적으로 우상타파적이고 인간해방적이라는 사실을 그 백년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이론과 실천의 연대 노력 필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정신분석학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것에 대한 열기가 어떤 거품성 붐이나 일과성 시대사조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과 학문 전반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으로 내실화되자면, 인문과학적 이론가들과 실천적 분석가들의 연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신분석학이 원래 환자 치료를 위한 정신의학의 일부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분석 현장의 실천적 임상경험을 무시한 이론만의 논의는 자칫 공허한 말의 유희로 끝날 위험이 있다.

반면에 정신분석학은 인문과학적 조명을 통해 철학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 요즘 구미각국에서 정신분석학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문학이론가들, 철학자들, 사회평론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보다 시인이나 철학자들이 이미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프로이트의 겸양적 발언이 아니더라도 정신분석학과 인문과학의 친화성은 끈끈하다.

정신분석학이 문학의 무의식을 밝혀 줄 수 있다면 문학은 정신분석학의 무의식을 형성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프로이트가 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나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이나, 라캉이 에드거 앨런 포의 《도난당한 편지》에 관한 세미나를 《에크리》의 첫 장에 실어 이 책의 주제로 삼으려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

끝으로 정신분석학 이론의 성공적인 수용과 토착화를 위해서는 정신분석학과 관련된 좋은 저널의 발간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이 분야에 관한 개성 있고 품격 높은 저널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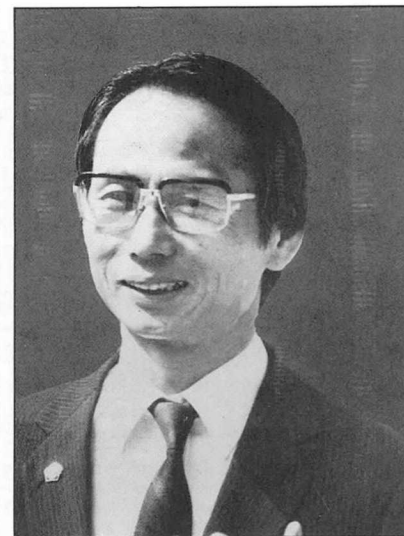
현암사는 《법전(法典)》의 출판으로 그 전통과 명성을 자랑한다. 그냥 법령조문만 수록하는 법령집이 고작이던 시절에 현암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진형 법전을 냈다는 것은, 특히 나처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욱이나 반가운 일이었다. 현암 조상원 선생의 착안과 집념은 누구도 따르기 힘든 선구적인 데가 있었다.

그는 법령의 생성변개(生成變改)가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한국의 입법풍토 속에서 법령을 적절히 분류·체계화시켜 실정법의 갈래를 잡는 작업을 하였고, 법령의 적용이나 집행이 종잡을 수 없는 권력만능시대에 그나마 방패로서의 법전을 널리 보급시킨 유공자이기도 하다.

현암 선생은 법령을 편집 또는 출판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연구와 집필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는 법이란 좋은 삶든 인간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고, 특히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주권자인 국민 각자의 법의식 및 법지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때, 그분의 그런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마땅하다. 이번에 간행된 현암 선생의 《법률테마기행-법이 뭐길래》를 읽으면서 위에서 말한 우리들의 현암관(玄岩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말에서 저자는 “3천4백이 넘는 우리나라

- 세속적인 의미에서
- 법률전문가가 아니면서도
- 머리 아픈 법률문제를
- 전문가 이상으로 천착한
- 저자에 경의를 표한다.
- 법의 비민주성 때문에
- 괴로움을 당하기 쉬운
- 서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 사랑이 아니면 이처럼 힘겨운
- 집필은 하기 어려웠으리라.



한승헌씨.

라 법률의 밀림 속에 약간 트여 있는 오솔길을 따라 길잡이 노릇을 해보고자 한다”고 겸손하게 저작의도를 밝혀 놓았다. 실제로 이 책은 법을 좀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테마별로 나누고 에세이 형식을 가미해서 씀으로써 읽는 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장 <법률과 국가>에서는 법의 근본문제와 일반원칙을 풀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딱딱한 법률서적 같은 무미건조함을 탈피하여, 예컨대 국적의 해석문제는 ‘놀부 같은 심사’ 입법절차문제는 ‘조삼모사’로 취득시효·소멸시효문제는 ‘시효라는 마법’ 그리고 법의 응용문제는 ‘있으나마나한 법률들’로 글 제목부터가 아주 이채롭다.

2장 <나의 자유와 권리>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글이 모여 있으며,

3장 <우리의 의무>, 4장 <행위능력과 재산권 등>까지는 법의 총론적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이론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실례를 중심으로 하여 생동감 있게 쓴 필치가 읽는 이

를 그냥 놓아주지 않는다.

5장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6장 <남과 여>, 7장 <기업과 노동>에서 저자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구체적 각론적인 문제를 쉽고도 명쾌하게 풀이해주고 있다.

끝으로 8장 <죄와 벌>, 9장 <재판소와 소송>에서는 재판과 처벌에 관해서 길잡이가 될 만한 글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우선 저자의 탐구정신과 애민정신을 느끼게 된다. 또한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면서도 머리 아픈(?) 법률문제를 그처럼 전문가 이상으로 천착했다는 점에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법의 까다로움이나 비민주성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기 쉬운 일반국민-서민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사랑이 아니면, 이처럼 힘겨운 집필은 하기 어려웠다고 여겨진다. 이 책처럼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쓴 역저(力著)가 나와서 지식이 대중화되고, 특히 법이 권력자나 전문가만이 아닌 일반국민에게도 쉽게 터득되어 만인을 위한 기기(利器)가 되어야만 참된 평등과 법치사회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이시면서도 이처럼 참신하고 유익한 저서를 세상에 내놓으신 현암 선생께서 후학들을 위하여 더욱 값진 본을 보여주시고 아무쪼록 백수(百壽)를 누리시기를 삼가 기원한다. ❖

조상원 지음/현암사/A5신/272면/5500원

